

시민 채록단이 기록한 광주 女가사노동자 삶·이야기

●광주여성가족재단 '우리는 마이다스 손이라...' 발간



식모, 가정부, 파출부, 아줌마, 이모, 도우미, 가사서비스직, 가사근로자, 가사노동자, 가사관리사... 시대를 관통하며 많은 이름으로 불려 온 직업이었다. 다른 가정의 가사일을 대행해 주는, 이른바 '가사노동자'다. 광주의 경우 현재 가사노동자로 종사하는 95%가량이 여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절대적으로 대다수인 직업군이다. 이들 삶의 궤적은 어떠한가.

광주여성사 발굴·아카이빙 사업 결과물 일환
20일 구술자·채록자 참여 출판기념 간담회도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의 여성 가사노동자 5인의 구술채록을 담은 '우리는 마이다스 손이라 그레'를 발간했다. 이번 구술채록 집은 '광주시민이 기록하는 광주여성의 역사'라는 취지로 재단이 추진해온 광주여성사 발굴 및 아카이빙 사업의 세 번째 결과물이다. 과거 '식모'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가장 많은 여성이 택했던 일이다. 집안의 입 하나를 털기 위해 남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던 어린 여성들의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이후 가사노동은 가정부, 파출부 등의 이름을 거쳐 오늘날 가사노동자,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로 남성 실직이 크게 늘자 주부들이 사회로 나왔고, 동시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가사노동 수요가 급증했다. 이후 '가사노동자'라는 용어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처음 쓰이며 상용화됐다. 이번 구술채록에 참여한 여성 가사노동자들 역시 최전방의 일꾼이지만 '그림자 노동자'로 존재해 온 굴곡진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박연옥(1951년생), 정혜선(1954년생), 박정숙(1958년생), 주향복(1964년생), 전희숙(1967년생) 5명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이 가사노동 현장에 뛰어든 사연은 제각기 다르면서도 비슷한 양상의 고단함을

보인다. 집안 경제에 일조하기 위한 딸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사연을 비롯해 자영업·보험·공장·일반 회사 등 다양한 직종을 거친 뒤 가사노동 현장에 최종적으로 뛰어든 상황도 그렇다. 삶의 많은 이면과 사연을 거친 뒤 택한 직업이 그들에게 가사노동인 것이다. 구술자들의 삶 속 '가사노동자'라는 단어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을 무릅쓴 송고함이 깃들여 있다.

특히 구술채록 작업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발견된 지점은 구술자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다. 고단한 경로와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된 가사노동자로서의 삶은 그들에게 오롯한 희망이고 기쁨이 됐다. 내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고, 건강만 허락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은 직업이다. 다른 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은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이들은 훨씬 더 주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내 것인데 네 것인데 나는 그저 '내 것 한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박연옥님, "일을 딱 끝내고 나서 뒤돌아보면 너무나 뿌듯하다. 내가 우리를 '마이다스 손'이라 한다"는 전희숙님의 구술에서도 그 자부심과 진정성은 여실히 느껴진다.

이들에 대한 채록작업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양성된 재단 구술채록단 중 한영숙·조경미·김강현·장상은·이정선 5명이 맡았다. 대학·출판사·방송사·프리랜서·주부 등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이들 채록단은 올해 내



박연옥



정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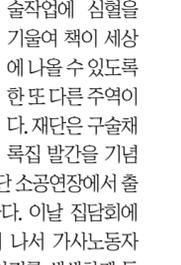
박정숙



주향복



전희숙



김경미

내 가사노동자 구술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주역이다. 재단은 구술채록집 발간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재단 소공연장에서 출판기념 집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집담회에서는 구술자·채록자들이 나서 가사노동자의 삶과 채록 과정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참여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구술채록집과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김경례 재단 대표이사는 "이 책은 '가사노동'이라는 분야를 자신의 일터이자 삶터로 삼아온 여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귀한 기록집이다"며 "이들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지탱해 온 최전방의 일꾼이자 시대의 민초이고 가장"이라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새로운 책



▲문화통plus 겨울호(통권 53호)
이번 호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관련 에디터레터 '광주에 노벨문학상 기념관을 만든다면'으로 시작된다. 이어 '전라도문화수수께끼' 섹션에서는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避世里)'라는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집으로 '광주 최초' 저자 김경수 문학박사가 쓴 '광주 이야기'를 수록했으며, 방송가 핫 이슈였던 여성극극 예인들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한 tvN 12부작 시대 음악 드라마 '정년'에 얽힌 뒷이야기를 다뤘다. 인기 칼럼니스트 조용현의 '이 동네서 소설 자랑하지 마라'와 노영대 변호사의 '노변한담'도 만날 수 있다. /광주문화발전소



▲내 가난한 문장은 자주 길을 잃는다 =배태건 저자
비교적 늦은 나이에 문단에 발을 들여놓은 배태건 시인의 첫 시집 '내 가난한 문장은 자주 길을 잃는다'는 시인의 자화상과 다르지 않다. 그간 치열한 사회인으로서 일상에서 스스로에게 늘 물음표를 던졌던 감성의 잔재들을 '시'라는 정서적 순환으로 치환시켰다. 그렇기에 시집 전반은 잔잔하면서도 내면적인 서글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시인의 이러한 자화상은 결국 우리 인간이 지닌 근원적 상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황정산 평론가는 "시인의 시는 애절한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슬픔이 짙게 배어 있다"며 시집 전반의 내면적 정조에 대해 평했다. /작가마을·1만2천원



▲직박구리에게 배우다=김은아 저자
김은아 시인의 세번째 시집은 앞선 시집들에서 지향해온 시적 경향의 연장선에 있다. 삶의 연륜이 깊어지는 만큼 시적 의미와 삶에 대한 깨달음, 통찰이 더욱 깊어졌다. 일상과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의 시편은 그의 삶에서 던져지는 질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성을 탐구하는 시편들 또한 한층 견고해져 생명성의 본질을 묘사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한 과묵한 연민의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이번 시집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내면으로만 침착하지 않고 사회적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시와사람사·1만2천원



▲해피버쓰데이=백희나 글·그림
매일 나에게 새 옷을 선물하는 마법의 옷장이 있다면 어떨까. 독창적인 상상력과 따뜻한 감성을 담은 백희나 작가의 신작이 출간됐다. 이 책은 생일 선물로 받은 하루에 한 벌씩 새로운 옷이 걸려 있는 마법의 옷장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는 얼룩말 소녀 '제브리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어린이 어른 독자 할 것 없이, 옷과 패션에 사랑하거나 어릴 적 인형 놀이를 즐기던 이들에게 더없이 사랑스러운 책이다. 또한, 누구나 한 번쯤 어두운 시절 속에서 위로와 활기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깊은 위안을 선사한다. /스토리보틀·1만7천원

용아기념사업회, 용아학술논문집 및 용아문학 발간



전국 대학원생·연구자·국문학과 교수 등 수상작
용아선생 업적 계승·학술적 가치 심층 연구 확장

(사)용아박용철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용하)가 최근 '용아학술논문집' 및 '용아문학'을 발간했다. '용아학술논문집'에는 전국 대학원생 및 연구자, 국문학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제4회 용아 학술상' 수상작 논문을 실었다. 1부에는 최우수학술상인 김청우 부경대 교수의 '박용철의 인지시학적 연구'를 비롯해 우수논문 김미미(전남대) '공백으로서

민족어와 낭만', 김학중(경희대) '박용철 시에 나타난 '기술'의 문제', 정유선(조선대) '박용철 시, 시론에 나타난 '재현'의 문제'가 수록됐다. 2부에는 용아문학을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데 노력한 류복현, 이현선(전 광산문화원장)의 '용아의 삶과 예술' 및 용아기념사업회의 노력과 회고 등을 담았다. 아울러 '광주문학의 맺달 용아문학 브랜드를 만들자'는 내용의 박준수 시인 제언을 실어 향후 용아박용철 기념사업회의 방향성

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편집부 기획 기사로 '1930년부터 광복까지 우리나라 현대 문학사'를 실어 교육적 가치를 높였다. '용아를 그리다'를 주제로 한 올해 '용아문학'에는 용아박용철 기념사업회 회원과 50여명의 지역 문인이 시·시조·수필·소설 작품이 담겼다.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용하의 '용아박용철추모 헌시조(獻詩調)'는 용아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고양했으며, 지역 출신 원로작가 강산에늘봄찬치(강성수) 시인은 '광산에향시' 10편을 통해 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아울러 특별기고 '용아시 감상패레이드(박덕은)와 '민족문예운동가 용아박용철 선생 문학산책(이성환)'을 통해 용아 박용

철 선생의 시를 조명했다. 올해 '용아문학'은 그동안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문학 단체의 통합을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 용아 박용철 선생의 문학을 계승하겠다는 지역 문인들의 굳건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용하 이사장은 "용아 선생은 시인뿐 아니라 문예운동가로서도 우리나라 문학사에 큰 획을 그었다"며 "이번 학술·문예발간을 통해 그 업적을 계승하고 학술적 가치에 대한 심층 연구를 확장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용아박용철 기념사업회는 박용철 문학관 건립과 더불어 용아 생가의 국가 지정문화재 승격, 용아 선생의 문학 계승을 위한 발간 사업, 용아 생가-어등산 의병 활동장 소년 송정리역-광동 소촌산 단단 임방울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p>지방 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